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20일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연구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연구 중간발표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8월 20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연구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변동주 위원장, 이계영·이규식 부위원장과 협회·조합 임원 등을 비롯하여 송실대 유희선 교수(한국플랜트학회), 세명대 손창백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장현승 교수(한국건설관리학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오치돈 선임연구원은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발전플랜트 건설공사 수익성 악화 원인 △발전플랜트 건설 현장 실태 분석 △수익성 악화 해결안안 △제

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플랜트업계의 현실 및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향후 영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플랜트현장의 안정적인 건설인력 확보를 위해 모든 건설공사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발주한 것으로 주관 연구기관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사)한국건설관리학회, (사)한국플랜트학회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